금주의 법구-〈수행본기경〉
우리의 목숨은 짧고 짧다.
이 세상은 실로 덧없는 것,
그러므로 부지런히 힘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19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4월 23일) 2018년 6월 6일 수요일

신개념 '불교영어' 어린이 포교 이끈다

어린이 영어법회 · 템플스테이 '新 포교 트렌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그동안 불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이번 캠프에서 배운 불교 영어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지난 2월 10일 화성 용주사에서 열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제1회 불교리더십영어캠프에 참여한 이건호 학생과 학부모 김지혜 씨는 "외국인 강사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불교를 배우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2000년대 초반 어린이 영어법회가 각 사찰에서 개설된 데 이어 최근 영어캠프 및 합창공연 등 분야가 넓어지고 있다. 어린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 능통한 스님, 없나요?

어린이 영어포교의 현주소는 어린이 영문자타가 암송대회를 보면 극명히 드러난다. 조계종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는 2000년대 초반 영어 조기교육 붐을 틈타 개최됐다.

2008년 1회 대회에는 60명이 예선에 지원했다. 2회 대회 47명, 3회 대회 58명, 4회 대회 42명, 5회 대회 78명, 6회 대회 90명, 7회 대회 76명 등 꾸준히 늘었다. 이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사찰은 1회 대회 41곳 중 22곳에 불과했다.

민병완 국제포교사회 사무처장은 "어린이 영어모임이 사찰에서 없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잘 되는 사찰에는 아이들이 몰리고, 안 되는 사찰에서는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찰에서 어린이 영어모임이 없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는 지도자 부재가 꼽힌다. 2013년 구례 화엄사는 어린이 영어법회를 시작했지만 현재 법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화엄사 관계자는 "담당하시던 스님께서 보직을 그만두시고 나서 마땅한 지도자가 없어 중단됐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어린이 영어담마캠프를 개최하고 있는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역량을 갖춘 영어 지도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지도하는 스님이 다른 사찰로 가시거나 하면 모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은 역량을 갖춘 스님들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5년 제1회 조계종 외국어 스피치 대회 열었으며, 중앙승가대의 포교영어 강좌, 동국대 국제불교문화사업학과 개설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선센터 국제차장 보관 스님은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불교를 설명하려면 현장경험 또한 많아야 한다"며 "실력 있는 스님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 사찰에 매칭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교 관심 원어민 · 불자 영어교사 활용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영어에 능통한 재가자, 불교에 관심있는 원어민들을 영어법회나 행사의 지도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6월 3일 첫 어린이영어법회를 시작한 강화 전등사의 경우 인근 학교의 불자 영어교사를 지도법사로 초청했다. 전등사 포교국장 태정 스님은 "영어 능통 스님이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불자인 인근학교 영어교사를 모셔왔다"며 "신심이 깊어 자원봉사로 맡아 주셨다. 15명의 아이들이 법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템플스테이나 합창 등 원어민들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되고 있다.

영어 지도자 의존도 높아
사찰 연결 네트워크 필요
스님 외 재가자 활용 모색
문화강좌에 원어민도 활용

서울 국제선센터는 2016년부터 방학 때마다 원어민이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영어템플스테이를 인기리에 개최하고 있다.

권진영 국제선센터 대리는 "매주 토요일 영어 명상인 담마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 참여하는 외국인들에게 아이들 지도를 부탁해 어린이 영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도자 1명당 아이들 4~5명의 소수가 배정돼 신청접수 하루면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는 사중 어린이합창단을 올해 3월부터 불교영어합창단으로 재구성했다. 한때 다섯명 남짓하던 합창단원은 34명까지 늘어났다. 영어 찬불가와 뮤지컬곡 등을 연습하기에 6월 둘째주부터는 지도가 가능한 원어민 강사도 참여할 예정이다.

황학현 봉은사 종무관은 "신행 뿐만 아니라 사찰 문화교육 등에는 원어민 참여도 가능하다. 어린이 포교와 영어 교육, 불교문화 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원적에 들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추도물결이 이어진 가운데, 5월 30일 대종사의 영결식이 신흥사에서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사진은 무산 대종사의 평생 지음이었던 고성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이 영결식에서 행장소개를 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주인 잃은 설악 슬픔 가득하네"

조계종 원로의원 설악당 무산 대종사 영결식 엄수

5월 30일 신흥사서 대중 운집
불교 · 문학계 등 각계 인사 참석
500여개 만장 이운행렬 동참해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제3교구본사 신흥사 조실 설악당(雪嶽堂) 무산(霧山) 대종사가 5월 26일 원적에 들면서 세간과 출세간의 추도물결이 설악산을 가득 메웠다. 산중의 주인이 떠난 자리에는 대종사가 남긴 듯 말 없는 경책이 안개로 남아 무산(霧山)을 이뤘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의 영결식은 5월 30일 속초 신흥사서 조계종 원로회의장으로 엄수됐다. 영결식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설정 스님 등 종단 중진 스님들과 사회 각계인사, 전국서 모인 불자 등 1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영결식은 명종과 영결법요를 시작으로 문도대표인 마근 · 문석 스님의 헌향과 헌다가 진행됐으며, 호상을 맡은 무산 대종사의 지음(知音)인 정휴 스님이 행장을 소개했다. 이어 생전 법문영상에서 "모름지기 수행승은 삼독의 불길 잡는 소방관이 되어야 그림자가 부끄럽지 않다"는 무산 스님의 법문이 장내에 울려 퍼지자 대중은 합장인사하며 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무산 대종사께서 남기신 팔십칠의 성상은 선과 교의 구분이 없고, 세간과 출세간에 걸림이 없던 이 시대 선지식의 발자취였다. 오직 본분수행과 후학불사, 불교문화 쇄신을 평생의 원력으로 매진했다"면서 "산중을 지혜와 덕망으로써 원융화합을 이뤄내고, 설악의 불교문화를 부처님 정법으로써 세계문화로 전승하고 전법포교로 회향하셨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설정 스님 또한 추도사를 통해 무산 대종사가 한국불교와 일반사회에 남긴 업적을 기렸다. 설정 스님은 "스님께서 남몰래 품어 온 우리 종단과 세간의 중생들은 무량한 스님의 자비심 속에서 함께 했다. 참된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고 고통에서 일어설 용기를 가졌다"고 대종사를 추도했다.

무산 대종사 가르침 기린 대중

무산 대종사가 불교뿐만 아니라 문학계, 지역사회 등 곳곳에 영향을 미친 만큼 조사 낭독에는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우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래옥 前용대리 이장 등 많은 대중이 참여했다.

특히 마을주민 대표로 나선 정래옥 前이장은 용대리~백담사 셔틀버스 운영권을 주민들에게 넘겨주는 등 지역민을 살뜰히 챙긴 무산 대종사의 넓은 품을 회고했다. 정 前이장은 "큰스님께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많은 장학금을 주시고, 노인복지에도 늘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다"며 "마을 발전에 물심양면 도와주신 덕분에 용대리가 우뚝 서게 됐다. 저희들은 용대리 어느 곳을 가나 스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돌아보며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사오니 편히 잠 드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산 대종사의 상좌인 득우 스님과 유발상좌격인 이근배 원로시인은 각각 조시와 헌시를 낭독, 대종사의 삶과 업적 · 가르침 등을 돌이키며 원적을 추도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다비의식을 위해 무산 대종사 법구가 일주문 밖으로 이운됐다. 사부대중은 인로왕번을 선두로 500여개의 만장을 들고 이운행렬에 동참했으며, 다비장소인 금강산 건봉사로 이동해 거화의식을 봉행했다. 대중은 "큰스님 불 들어갑니다!"라고 함께 외치며 불을 놓았고, 적멸의 길을 떠나는 무산 대종사를 배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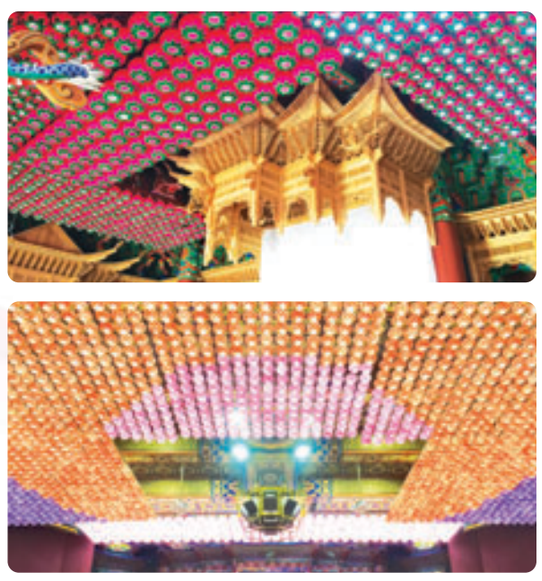
속초 신흥사=윤호섭 기자

설악당 무산 대종사 추모특집 B1~5면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